



11면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정책토론회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4년 11월 25일 월요일 (음 10월 25일) 제3631호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원 2길 6번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내 전북특별자치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지난 22일 전북테크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지역-대학 동반성장 포럼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신효근 전북도민일보 사장, 지역대학 총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22일 고창군청에서 열린 '서해안 철도 국가계획 반영 촉구 결의문 채택'에서 신원식 군산시부시장, 권익현 부안군수, 심덕섭 고창군수, 장세일 영광군수, 임만규 함평군부군수가 맞손을 잡고 있다.

RISE 체계 내 지역발전 방향 논의

지역-대학 동반성장 포럼

지역소멸 시대와 대학혁신 전략 등 3가지 주제 발표

지산학연 연계 방안 등 지역·대학 동반성장 위해 토론

언론, 대학, 산업계 등 지역혁신기관들이 모두 모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내 전북특별자치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북테크노파크와 전북도민일보, 전북연구원, 전북대가 주관하고 원광대와 국립군산대, 전주대가 후원하는 전북테크노파크, 전북도민일보 주최 '지역-대학 동반성장 포럼'이 지난 22일 전북테크비즈니스센터에서 열렸다.

250여명이 참석한 이번 포럼은 내년 본격 추진을 앞둔 대학재정지원사업의 대전환인 라이즈 체계내에서의 전북의 산업육성 및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 등 지역 및 대학의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라이즈는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와 지역의 인적·물적 집약체인 대

학이 협력해 지역의 혁신과 발전을 이끌어가는 체계다. 그간 교육부 주도의 획일적 대학지원에서 벗어나 지역의 수요를 조정하는 지자체에게 예산 및 권한을 위임·이양함으로써 지역 문제 해결, 인구소멸 및 대학의 공동 위기 극복을 통한 지역과 대학의 상생 발전을 목표로 한다.

이날 열린 포럼은 △지역소멸 시대와 대학혁신 전략 △라이즈 체계 성공 방안 △라이즈 체계 전북특별자치도 및 대학의 전략 등 세 가지 주제로 진

행됐다. 먼저 첫 번째 세션에서는 교육부 라이즈 컨설팅 위원장 한명인 정영길 건양대 교수는 지역소멸 시대 대학의 혁신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전북대 장태일 기획부처장은 라이즈 체계 내 글로벌 대학 상생방안을 설명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전북연구원 김수은 연구위원이 전북의 라이즈 추진전략에 대해, 오정근 국립군산대 기획처장이 라이즈의 문제점 및 성공적 전환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마지막 세션인 패널토의에는 원광대 남궁문 교수를 좌장으로 송기정 캠퍼스종합기술원 본부장, 이해원 전주대 부총장, 이근상 전주비전대 산학협력단장, 임동욱 이노비즈협회 전북지회장, 용석훈 이피캠퍼스(주) 상무가 참여해 라이즈 체계 지산학연 연계방안에 대해 열린 토의를 펼쳤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 언론 및 산업계, 대학이 함께 지역발전을 논하는 뜻깊은 시간이다"며, "앞으로 지역발전계획 및 지역산업육성 방향에 부합하는 라이즈 추진을 통해 인재양성-기업유치-취창업-지역정주로 이어지는 지역발전 선순환 체계를 탄탄히 구축해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서해안 철도망 구축해 지역 균형발전 앞당겨야”

군산·고창·부안 등 5개 지자체장, 촉구 결의문 채택
“서해안고속도로 통행량 분산... 국토이용 효율성 강화”

호남 서해안권(군산, 고창, 부안, 함평, 영광) 5개 지자체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해안 철도망 구축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앞당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22일 오전 11시 고창군청 대회의실에서 '서해안 철도 국가계획 반영 촉구 결의문 채택'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신원식 군산시 부시장을 비롯해, 심덕섭 고창군수, 권익현 부안군수, 임만규 함평군수, 장세일 영광군수가 참석했다.

5개 지자체장은 서해안 철도 인프라 관련, 호남 서해안권이 충청 경기지역에 비해 일방적인 차별을 당하고 있는 현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 지난 2일 서해안(서화성~홍성), 장항선(신창~홍성), 포승평택선(안중~평택) 3개 노선이 동시 개통되면서 충남·경기지역 철도망 구축의 선기원이 열렸다. 또한 동해안권인 포항~삼척 간 철도가 올 연말에 개통될 예정이다.

반면, 전북과 전남 서해안은 국책사업인 새만금을 비롯해, 조선업과 원자력, 해상풍력, 전기차, 드론 등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첨단산업의 중추임에도 수년째 철도망 구축 관련해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5개 지자체장은 결의문을 통해 “서해안 철도는 물류비용을 줄여 국가 첨단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포화상태에 이른 서해안고속도로 통행량을 분산시켜 탄소배출 저감과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끌어 올릴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폭발하는 관광수요 대응 차원에서 철도망 구축 필요성 역시 제기했다.

실제로 호남 서해안권에는 5년 내 2개의 국제공항(새만금국제공항, 무안국제공항), 3개의 국제여객터미널(군산항, 새만금신항, 목포항), 크루즈터미널(부안 격포)이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따라서 중국, 일본, 동남아 관광객을 내륙까지 끌어 나르기 위한 철도망이 필수적이다.

군산시 등 5개 지자체는 기자회견 이후 올 연말까지 협의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며, 국회(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관계 지자체 공동 결의문을 전달할 방침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김석진 기자

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024년산 벼 정부보급종 신청·공급

5품종 1686톤 내달 20일까지 도내 농기센터 등 통해 신청·접수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김병준)은 2024년산 벼 정부보급종(이하 보급종)에 대해 12월 20일까지 전북지역 시·군 농업기술센터(농업인상담소 포함)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4년산 벼 보급종 신청·공급물량

은 신동진, 참동진, 동진할, 해담쌀, 해품 등 5품종 1,686톤으로 전량 미소독 종자로 신청을 받는다.

아울러, 보급종은 출고 이후 신청내역(품종, 수량 등)에 대하여 변경 및 취소가 불가능하다. 신청 농가에서 변경 및 취소가 필요한 경우 출고 이전

에 접수기관 또는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종자구입확인서는 신청한 농가명의로만 발급되므로 대리신청 시 발급이 불가능하다. 반드시 농업인 본인 이름으로 신청해야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한 종자는 품질보증이 완료된 시점부터 3월 31일까지 종자신청 시

선택한 지역농협을 통해 신청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다.

보급종 수령방법은 농업인이 직접 지역농협을 방문하여 신청한 종자의 품종 및 수량을 확인하고 종자대금을 납부한 후 공급받으면 된다.

보급종 신청·공급 관련 문의 또는 품종별 특성 등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다면 국립종자원 대표번호(1533-8482) 또는 국립종자원 전북지원(063-530-3620), 가까운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이만호 기자

고창군 GOCHANG COUNTY

유네스코세계유산도시 **고창**

구시포 쌍둥이등대